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6/3(주일) 설교 내용

사무엘상 9:1-10

1. 숙부는 사무엘을 만나고 돌아오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어떤 말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그 때,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지목된 말은 빼고 암나귀에 대한 말만 합니다. 만약 내가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사무엘로부터 자신이 왕으로 지목된 이야기를 듣고도, 사울은 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사울의 입장에 서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 상황을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 목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으로,
'사울처럼 반응했을 것이다' 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대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도 더불어 나눌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
시기 바랍니다.

2. 인생을 살면서 겸손함으로 귀감이 되었던 분을 만났다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났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질문 그대로입니다.

각자의 인생 속에서 '겸손' 하면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반대의 경우의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것이 특정 사람에 대한 비난의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정적인 대상에 대한 나눔이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겸손으로 인해 귀감이 되었던 대상'에 대해
나눔의 분위기를 전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목장예배의 마무리는,
목자의 진솔한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직분을 맡고 난 이후,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마냥 겸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목자로서 얼마나 겸손의 모습을 유지했는지,
목원들에게 솔직히 나눠주시고,
혹여나 겸손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사무엘과 같이
목자를 깨우쳐 주는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목장예배에도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